

예 시 답 안 (사회계)

<논제 I >

[가]~[매]는 다문화 수용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보여준다. [가], [매]는 동화주의적(melting pot) 입장을, [나], [래]는 다원적 다문화주의(salad bowl) 입장을, [대]는 극단적 민족주의 입장을 보인다.

[가]에서 프랑스 정부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어긋난다면 부르카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다. [매]에서 미국인들은 혈통과 문화를 용광로에 넣어서 새로운 생활양식, 정부, 그리고 개인의 지위를 만들어 간다고 주장한다. 이는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의 단일한 문화를 형성하려고 하는 태도이다.

한편 [나]는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자기 고유의 문화를 지켜가면서 서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[래]도 비잔틴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공존을 통해 이교도 문화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태도이다.

이에 비해 [대]는 우등한 인자가 열등한 것을 지배함으로써 인류의 우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적 태도이다. [496자]

<논제 Ⅱ>

제시문 [바]는 다른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지만,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수용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. 확고한 문화적 주체의식이 갖춰 있을 때 비로소 다른 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,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더욱 풍요롭고 보편적으로 만들 수 있다.

이런 점에서 볼 때 제시문 [다]~[마]는 각각 문제를 안고 있다. 제시문 [다]는 타 문화에 대해 극단적으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. 다른 문화를 자신들보다 열등한 것으로 치부하고 배제하려고 한다면 문화충돌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. 자신들의 문화적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다른 문화를 적극 수용할 때 더욱 우수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. 제시문 [라]의 경우 새로운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이질적 두 개의 문화가 별개로 존재한다면 창조적 문화융합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. 각각의 문화가 자신들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들을 창조적으로 종합하여 문화적 민족의식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. 한편 제시문 [마]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정체성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 개별 문화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, 새롭게 유입되는 다문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주류문화에 동화시키고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 [651자]

<문제 Ⅲ>

프랑스마을(A)과 조선족마을(B)의 관념적 거리는 $d_{AB} = \sqrt{(x_A - x_B)^2 + (y_A - y_B)^2} = \sqrt{(2.1 - 2.8)^2 + (3.0 - 3.6)^2}$ 으로 $\sqrt{0.85}$ 이다. 이는 <그림1>에 나타난 원의 반지름에 해당한다. 이때 프랑스마을에 대한 몽골마을의 관념거리가 조선족마을보다 더 가까우려면 몽골마을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의미하는 좌표인 (항목1평균, 항목2평균)이 원 안에 속하면 된다. 이때 원 안에 속할 확률은 $\frac{\text{원의면적}}{\text{전체면적}} = \frac{0.85\pi}{(5-1)^2} = \frac{17}{320}\pi \approx 0.17$ 이다.

한편, 이슬람마을의 경우는 항목2의 값이 2.3임을 알고 있으므로 조건부확률이 된다. 따라서 원의 방정식인 $r^2 = (x-a)^2 + (y-b)^2$ 를 활용하여 $0.85 = (2.3 - 2.1)^2 + (y - 3.0)^2$ 을 만족하는 y 를 구한다. 그러면 $(y - 3.0)^2 = 0.81$, 즉 $y = 3.9$ 또는 2.1 이 된다(<그림2> 참고). 결국 이슬람마을의 항목2의 평균이 2.1에서 3.9 사이에 들기 위한 확률은 $(3.9 - 2.1)/(5 - 1) = 0.45$ 이다. 따라서 답은 각각 0.17과 0.45이다.

